

# 광주 애니메이션 동심 사로잡다

JM 애니메이션 '쥬로링 동물탐정' KBS 방영  
 마로 스튜디오 '우당탕탕 아이쿠'는 EBS에  
 정보문화원 지원 ... 상 휩쓸고 해외 진출까지

광주 지역 업체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공중파 TV에 인기리에 방영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JM 애니메이션과 마로 스튜디오, 광주시 서구 양동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입주해 있는 이 업체들은 지난 5월부터 KBS와 EBS에서 방영 중인 애니메이션 '쥬로링 동물탐정'과 '우당탕탕 아이쿠'를 제작하고 있다.

◇각종 상 휩쓴 JM 애니메이션= '쥬로링 동물탐정'을 제작 중인 JM 애니메이션의 본사는 서울이다. 인력 양성 및 기술력 지원을 위해 지난 2008년 광주에 지사를 설립한 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CGI(Computer Generated Image·컴퓨터 가공형성 이미지) 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 '쥬로링 동물탐정'을 만들었다.

JM 애니메이션은 2008대한민국 만화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상을 수상한 '태극천자문'과 2009 미국 Artist Film Festival & Awards 단편부분에

서 세계인권을 수상한 'MTV-EX-IT Intersection' '아바타' '분터스3' 등 인기 애니메이션을 만든 곳으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광주지사에서 제작한 '쥬로링 동물탐정'의 경우 '공각기동대'와 '기동전사 건담'으로 유명한 가와모리 쇼지 감독과 공동기획·제작하는 등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정하영(여·35) JM 애니메이션 광주지사장은 "인력양성 차원에서 광주에 지사를 설립했는데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인재들이 많아 '쥬로링 동물탐정'을 제작할 수 있었다"며 "지역인재를 더욱 많이 발굴해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JM 애니메이션은 밀그림을 그리는 OEM 작업 위주로 활동했지만 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략하는 등 입지가 좁아지지 기획·창작 분야로 전환했다. 10년간 쌓은 기술력으로 충분히 기획·창작



광주지역 업체로 KBS에서 상영 중인 '쥬로링 동물탐정'을 만든 JM 애니메이션 직원들이 자신들이 만든 캐릭터를 들고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일호 대표

분야에서도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확신이 있었다.

이 전략은 적중했다. 많은 작품들이 상도 받는 등 국내외에서 호평받으며 소니사 등 유명 애니메이션 업체와 공동제작을 할 수 있었다.

정 지사장은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업체라고 해서 국내외적으로 호평받지 못할 법은 없다"며 "기존 애니메이션과의 차별화를 통해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업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재미와 교육까지 잡은 '우당탕탕 아이쿠'=지난 2007년 11월 설립한 마로 스튜디오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CGI 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돼 '우당탕탕 아이쿠'를 만들었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교육적인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어린이의 눈길을 끌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재미가 있어야 아이들이 시청하기 때문이다.

박일호(35) 마로 스튜디오 대표는 "아이들은 '하차마라'는 말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만화에서 친구를 살리는 지식을 내용으로 꾸몄다"며 "상영되는 10분간 절대 지루할 틈이 없어 아이들이 더 좋아한다"고 말했다.

E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우당탕탕 아이쿠'는 매주 1회 방영·2회 재방송되는 등 매주 3차례 방송됐으나 부모들의 요청에 8월부터는 주 6회 방송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교육적인 요소와 재미까지 잡은 탓에 국내 최초로 '소방방재청'에서 애니메이션 후원 승인을 획득하기도 했으며 EBS에서는 투자 및 공동기획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광주시와 진흥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좋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었다"며 "문화수도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쥬로링...' '우당탕탕...' 어린이들에 폭발적 인기



'쥬로링 동물탐정'



'우당탕탕 아이쿠'

'쥬로링 동물탐정'(KBS 2TV·월요일 오후 4시40분)은 '쥬로링'이라는 신비한 도구를 사용해 동물로 변신하는 세 자매 카카·루루·밍밍의 모험담을 그린 가족 관타지 2D 애니메이션이다.

일본에서도 지난해 10월부터 TV도쿄 채널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며 주제곡을 F(x)가 부르는 등 해외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우당탕탕 아이쿠'(EBS TV·금요일 오전 8시30분)

는 의계에서 여행 온 어린이왕자와 수행 로봇이 지구에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지구생활에 적응하면서 배우는 어린이 안전교육 애니메이션이다.

8월부터 주 6회 방영을 편성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어린이 안전 교육을 소재로 하고 있으면서도 재미있는 설정과 매력적인 캐릭터로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교육적 효과를 톡톡히 보여 주고 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 최양미 사진전 '바다를 머금다' ▶ 30일까지 '갤러리 함평'

함평 해변에 있는 사진 전문 전시관 '갤러리 함평'이 9일부터 30일까지 기획초대전 '최양미 사진전'을 개최한다.

2007년 하늘의 다양한 형상을 찍은 사진으로 개인전 '해를 마주하다'를 열었던 최양미(43)씨가 이번에 주목한 것은 바다. '바다를 머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최씨는 하늘과 바다의 경계, 보일 듯 말듯한 아련한 수평선으로 나뉜 하늘과 바다의 모습을 흑백뿐 작품 17점을 선보인다.

최씨는 "이번 작업은 엄마를 떠나 보낸 후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그 시선으로 바다를 보았을 때 내 마음속의 경계는 비로소 허물어졌고, 그제서야 한 모금의 바다가 내안으로 다가왔다"고 밝히고 있다.

건국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최씨는 '해를 마주하다' 등 두 차례의 개인전과 '국제사진영상기획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1-320-37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바다를 머금다'

## "여인들이 있습니다"

광주 '갤러리 D' 21일까지  
 강연균·오승우 등 31점

광주시 동구 대의동 '갤러리 D'(관장 강경자)가 오는 21일까지 강연균·오승우·오승운·최성중 등 국내 유명작가들이 여인을 소재로 그린 작품을 한자리에 모은 '여인들이 있습니다'전을 연다.

갤러리 D 소장 작품 중 '여인'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김영중·류영도·박양선·배동신·배준성·양인옥·진원장·정승주·정운태·정춘표·하반영 등 16인의 작품 31점이 전시된다.

석류와 국화 같은 정물화로 알려진 강연균 화백의 여인 누드는 작가의 작품세계 폭과 대성의 정교함을 새삼 보여준다. 여인의 뒷모습을 담은 간결하고 힘 있는 크로키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또 배준성씨는 누드의 여인과 웃을 입을 여인을 교차시키는 탠더플러 시리즈를 통해 여인의 이중적인 매력을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이외에도 국내 유명작가들의 유희와 드로잉은 물론 수채화, 크로키, 조각 등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작가들의 색다른 면을 살릴 수 있게 했으며 기존의 작품경향과 비교해 볼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16명의 작가들의 작품 속 여인들은 화합과 조화를 의미하면서 때론 기원과 평화를 나타내기도 하고, 전쟁과 욕정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인' 그 자체가 최고의 아름다움이다. 문의 062-222-801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연균 작 '누드'



## "들리나요? 가야금에서 나는 물소리 새소리"

빛고를 무등가야금연주단

9일 금호아트홀서 음악회

영롱한 가야금 소리에서 푸름이 묻어 나온다. 가야금과 오카리나, 기타가 어우러 지니 바람소리, 물소리, 들러온다.

지난 1992년 창단 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빛고를 무등가야금 연주단이 특별한 음악회를 마련했다. 9일 오후 7시30분 광주 유·스퀘

어문화관 금호아트홀.

'환경콘서트'라는 타이틀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자연을 주제로 새롭게 창작한 곡들이 처음 선보이는 자리다.

변계원씨가 작곡한 '평온한 안식'은 6대의 25현 가야금을 위한 중주곡이며 가야금 병창곡 '하복이 아들'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노래한 곡이다.

또 기타와 두대의 가야금이 어우러진 이승근 곡 '천후', 맑은 오카리나 소리와 가야금이 함께하는 이민

수의 '산사정담' 역시 기대가 되는 곡이다.

환경 관련 영상도 상영하며 공연 수익금은 환경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성심은 단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곡들은 자연의 구성요인 물과 빛, 나무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림, 안식 등을 노래하는 것들"이라며 "관객들이 우리 환경을 한번 생각하고 안식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653-89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하서 김인후 탄생 500주년 학술발표회

오늘 장성 필암서원

장성 필암서원 산악회(회장 오인균)는 7일 오전 10시30분 정성관에 서 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하서 김인후(1510~1560년) 선생 탄생 50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김병일 한국국학진흥원장과 교육계 원로 김정수씨가 각각 '선비정신을 위한 우리의 노력'

과 '하서선생의 삼태우서에 대하여'에 대해 강론할 예정이다.

한편, 필암서원측은 학술발표회 참석자들을 위해 광주~장성 필암서원간(광주공원 출발 오전 9시, 광주 문화회관 후문 출발 오전 9시30분)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문의 010-6712-8881.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moviehelic** 영화에 빠지다

상무점 **클름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나이트메이 (154)	1관 슈렉 포에버(3D 더빙) (연세)
2관 맨발의 꿈(연세)	2관 슈렉 포에버(연세)/여대생 기숙사(154)
3관 방자전 (184)	3관 파괴된 사나이 (184)
4관 나이트메이 (154)	4관 스폰라이스 (184)
5관 포화속으로(124)	5관 방자전(184)/맨발의 꿈 (연세)
6관 슈렉 포에버(3D 더빙) (연세)	6관 필립 모리스 (184)
7관 슈렉 포에버(연세)	7관 맨발의 꿈(연세)/A·복음대(154)
8관 스폰라이스 (184)	8관 포화속으로 (124)
9관 포화속으로 (124)	9관 포화속으로(124)/나이트메이 (154)
10관 파괴된 사나이 (184)	10관 나이트메이 (154)

향토사랑·영화사랑! 매일 심야상영 / 호남최대주최장 / www.joycbc.com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MEGABOX**

최고급관

1관 이클립스 (124)	1관 이클립스 (124)
2관 이클립스 (124)/슈렉포에버(연세)	2관 나이트메이 (154)
3관 나이트메이 (154)	3관 파괴된 사나이 (184)
4관 파괴된 사나이 (184)	4관 필립 모리스 (184)
5관 슈렉 포에버(3D 더빙/더빙) (연세)	5관 스폰라이스 (184)/포화속으로 (124)
6관 스폰라이스 (184)/포화속으로 (124)	6관 파괴된 사나이 (184)
7관 파괴된 사나이 (184)	7관 킬러인사이드미 (184)
8관 킬러인사이드미 (184)	8관 이클립스 (124)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http://www.megabox.co.kr)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고속 영상음극 부과

**CINUS**

1관 이클립스 (124)	1관 이클립스 (124)
2관 포화속으로 (124)	2관 킬러인사이드미(184)/슈렉포에버(연세)
3관 킬러인사이드미(184)/슈렉포에버(연세)	3관 슈렉 포에버(3D 더빙/자막) (연세)
4관 슈렉 포에버(3D 더빙/자막) (연세)	4관 나이트메이 (154)
5관 나이트메이 (154)	5관 이클립스 (124)/맨발의 꿈 (연세)
6관 이클립스 (124)/맨발의 꿈 (연세)	6관 파괴된 사나이 (184)

책갈피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http://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